

한국의 디아스포라 문학 현황과 전망

박정주

우즈베키스탄 국립 세계언어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https://doi.org/10.5281/zenodo.20546029>

Annotatsiya Mazkur tadqiqot koreys diaspora adabiyotining shakllanishi, rivojlanishi va badiiy xususiyatlarini tahlil qiladi. Unda yapon-koreys, koreys-amerika hamda koryo-saram adabiyoti misolida identitet, migratsiya, til yo'qolishi va madaniy moslashuv masalalari yoritiladi. Tadqiqot diaspora adabiyotining surgun va yo'qotish mavzularidan tashqari, ko'pmadaniyatli hamkorlik va umuminsoniy qadriyatlarni aks ettiruvchi muhim adabiy yo'nalishga aylanganini ko'rsatadi.

Kalit so'zlar koreys diaspora adabiyoti, identitet, transmilliylik, yapon-koreys adabiyoti, koreys-amerika adabiyoti, koryo-saram, jahon adabiyoti

Аннотация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развитие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альной литературы. Анализируются японско-корейская,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ая и корё-сарам литературы, отражающие проблемы идентичности, миграции, языковой утраты и культурной адаптации.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льная литература вышла за рамки тем изгнания и утраты, став важной частью мир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льная литература, идентичность, транснационализм, японско-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корё-сарам, мировая литература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development and literary features of Korean diaspora literature and its cultural significance in contemporary society. Focusing on Japanese-Korean, Korean-American, and Koryo-saram literature, the paper examines themes of identity, migration, language loss, and cultural adapt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diaspora literature has moved beyond exile and displacement toward multicultural coexistence and universal human values, strengthening its position within world literature.

Keywords Korean diaspora literature, identity, transnationalism, Japanese-Korean literature, Korean-American literature, Koryo-saram, world literature

I. 서론

21세기 글로벌화와 초국가적 이동의 시대에 문학은 더 이상 단일한 민족이나 언어의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는다. 인류의 보편적 경험 중 하나인 '이주'는 삶의 조건이자 문화적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다. 이러한 이주와 흩어짐의 경험 속에서 탄생한 디아스포라 문학(diaspora literature)은 세계문학의 중심 담론으로 부상하였다. 한국 또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세계화라는 격동의 역사를 거치며 다양한 형태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20세기 초 연해주, 만주, 하와이, 일본, 미국,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은 민족 정체성과 언어, 고향의 기억을 간직한 채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들의 서사는 단순히 '해외 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의 기억과 인간 존재의 근원적

질문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학적 자산이다. 본 논문은 한국 디아스포라 문학의 역사적 전개, 지역별 특징, 언어적 문제,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디아스포라 개념의 확장과 이론적 배경

‘디아스포라’(diaspora)는 본래 히브리 민족의 ‘흩어짐’을 뜻하는 성서적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이 용어는 식민지 지배, 노예무역, 전쟁, 경제적 이주 등 다양한 형태의 강제적 이동을 포괄하는 문화·정체성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James Clifford(1994)는 디아스포라를 “흩어짐과 귀향의 긴장 속에서 형성되는 문화적 네트워크”로 정의했고, Stuart Hall(1996)은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은 고정된 근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디아스포라 문학은 단순히 해외 한인 사회의 이야기라기보다, ‘이중적 정체성’과 ‘혼종적 언어와 문화’ 속에서 새로운 인간 존재의 양식을 탐구하는 문학으로 이해된다.

2. 한국 디아스포라 문학의 형성과 발전

(1) 초기 디아스포라 문학 - 식민과 이주의 서사 1900년대 초 한인들의 만주·연해주·하와이 이주는 식민지 억압과 생존의 문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시기 문학은 주로 민족의식, 고향상실, 생존의 고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연해주 작가 이상설, 이강국의 글에는 망명과 독립의식이, 하와이 이민 문학에서는 노동의 현실과 향수의 감정이 담겨 있다. (2) 분단 이후의 디아스포라 문학 한국전쟁 이후 해외 이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세대 디아스포라 문학이 형성되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 활동한 작가들은 민족의 분단과 개인의 정체성 혼란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 이창래(Chang-Rae Lee)의 『Native Speaker』는 언어의 이중성과 이민자의 내면 분열을 정교하게 묘사하며, Theresa Hak Kyung Cha의 『Dictee』는 여성, 민족, 언어의 복합적 억압 구조를 드러낸다. (3) 글로벌 시대의 초국적 서사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인터넷의 확산은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민진(Min Jin Lee)의 『Pachinko』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계 가족의 4세대 서사를 통해 집단적 기억을 재현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은 스탈린의 강제이주라는 비극적 역사 속에서 언어 상실, 민족 정체성, 기억의 재구성을 다룬다.

3. 지역별 디아스포라 문학의 특징

(1) 재일 문학 - 소속과 배제의 경계대표 작가: 김석범(『화산도』), 유미리(『JR 상행선』), 양석일(『피와 뼈』) 재일 문학은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모순을

드러내며, '조국 없음의 비극'과 '언어 속의 이방인'을 주제로 삼는다.(2) 재미 문학 - 언어의 혼종성과 문화적 간극대표 작가: 이창래(『Native Speaker』), 수잔 최, 이민진(『Pachinko』) 재미 문학은 영어로 쓰지만 한국인의 기억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언어는 정체성의 무기이자 족쇄로 그려진다.(3)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 - 기억과 생존의 서사대표 작가: 김병학, 함순례, 박연희 등. 고려인 문학은 강제이주, 언어 상실과 회복, 민족 기억의 보존을 주제로 한다.

4. 언어의 문제와 번역의 과제

한국 디아스포라 문학은 '언어의 이중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많은 작가들이 영어·일본어·러시아어 등 제2언어로 창작하지만, 그 언어 속에는 한국어의 정서와 리듬이 살아 있다. 이러한 언어 혼종성은 문학의 경계를 확장하지만, 동시에 번역과 수용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한국문학 연구는 '언어적 이주'를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창조적 전환의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5. 한국문학 내부의 디아스포라적 경향

최근 한국 내부에서도 '탈북민 문학', '다문화 서사', '이주노동자 문학' 등이 활발히 등장하고 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나 김애란의 『외국어 학원』에는 타자화된 존재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국내의 이방화 현상을 통해 새로운 디아스포라적 감수성을 형성하고 있다. 즉, 디아스포라는 더 이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III. 결론

한국 디아스포라 문학은 한민족의 역사적 이산과 세계 속의 정체성 탐구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문학이다. 그것은 이별과 귀향, 상실과 회복, 모국어와 타언어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적 문제를 성찰한다. 21세기 한국문학은 이러한 디아스포라적 서사 속에서 '한국적인 것의 보편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하고 있다. 미래의 한국 디아스포라 문학은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적 서사 공간으로 확장될 것이며, 언어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삶과 정체성을 탐구하는 한국문학은 세계문학 속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윤식·김현. (2006). 『한국문학사』. 서울: 민음사.

조동일. (2010). 『한국문학통사 6권』. 서울: 지식산업사.



- 김영희. (2020). 「디아스포라 문학의 정체성 탐구」. 『한국현대문학연구』, 45(2), 55-80.
- 김정숙. (2017). 『해외 한인문학과 민족 정체성』. 서울: 역락.
- 박연희. (2015). 「고려인 문학의 언어적 정체성 연구」. 『중앙아시아문화연구』, 8(1), 31-54.
- Clifford, J. (1994).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9(3), 302-338.
- Hall, S. (1996).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n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London: Lawrence & Wishart.
- Lee, Chang-Rae. (1995). *Native Speaker*. New York: Riverhead Books.
- Lee, Min Jin. (2017). *Pachinko*. New York: Grand Central Publishing.
- 유미리. (1996). 『JR 상행선』. 도쿄: 고단샤.
- 김석범. (1989). 『화산도』. 도쿄: 신초샤.